

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자

[신민] 제2권 11호 (1926년 11월호)

(주: 한글날 제정을 주장한 글)

우리의 자랑거리고 첫 손가락을 꼽을 것은 우리의 글이다.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 조상이 창작한 훈민정음이야말로 문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구비한 완전한 문자이다. 이 민족적 자랑거리를 반포한 것이 거금 사백팔십년전 음구월 이십구일이라 한다. 이 날을 우리 민족이 기념치 않고 돌아볼 자 누구이라. 우리의 손으로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에 우리는 아울러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다.